2016년 공인회계사 동차 합격수기

-시작했다면 최선을 다하자-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김희경

1.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제 51회 시험에 동차합격하게 된 김희경입니다. 저는 2015년 1월 봄 종합반을 시작으로 1년 반 동안 공부했습니다. 전공이 비상경계열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 학점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전혀 없는 채로 시작했기 때문에 정보도 부족했습니다. 시험과목의 수와 특성도 잘 알지 못하는 채로 학원에 왔을 정도였습니다. 제 수기가 비상경계열의 준비가 부족한 수험생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수험생활
2. 수험준비

CPA를 응시하기 위해서는 학점과 토익이 필요합니다. 저는 2014년 8월에 CPA를 응시하기로 마음먹었고 8월에 토익 시험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시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토익은 꼭 준비해 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험공부만으로도 양이 많고 복습하기도 벅찬데 토익까지 준비하면 본 수험 공부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영학 학점이 9학점만 이수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두 학점은행으로 학점을 채웠습니다.

회계원리는 봄종합반 시작 전에 미리 들었습니다. 인강으로 회계원리를 수강하면서 제가 인강을 꾸준하게 못 듣는다는 것을 알고 학원 실강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종합반 수강 전에 중급회계를 듣지 못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종합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학교 수업으로조차 중급회계를 접해본 적이 없는 이유로 걱정을 했었습니다. 중급회계를 모르고 종합반을 수강하면 따라가기 힘들다는 글을 인터넷에서 몇 번 봤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업 후 복습만 철저히 하면 종합반을 시작으로 중급회계를 수강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1월 봄 기본 종합반

저는 2015년 1월 나무 봄 기본 종합반을 수강했습니다. 저는 제가 종합반을 수강한 것이 짧은 수험생활의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강을 연속으로 2개도 잘 못 듣던 저였지만 학원에서는 억지로라도 6시간씩 수업을 듣게 되기 때문데 종합반 수강기간인 6개월 동안 공부하는 습관이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종합반을 수강할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함부로 어떤 과목이나 파트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합반때만큼 시간적으로 여유로울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 경험상 처음에 버리고 간 파트는 나중에 결국 발목을 잡습니다. 저는 고급회계를 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타 과목에 비해 소홀히 복습했었습니다. 결국 객관식 때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마음에 고급회계에 시간을 쏟아 부었습니다. 1차가 다가올수록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투자해야 할 시간을 쪼개어 내가 포기했던 과목에 투자하는 만큼 손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법은 처음 시작할 때 잘 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랭이보다는 이승철 선생님의 서브노트를 더 좋아했습니다. 정리되어 있어 가독성이 좋았기 때문인데, 저는 매 수업시간이 끝나면 그날 배운 부분의 서브노트를 빠짐없이 암기했습니다. 서브노트를 암기한 후에는 객관식 세법 중 리스트에 있는 문제들을 풀면서 문제풀이 능력을 키웠습니다. 종합반 시기의 객관식세법은 선생님께서도 추천하시는데, 저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브노트만 읽어서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푸는 방법도 익히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법은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라 수시로 서브노트를 다시 읽으면서 누적복습을 했습니다. 저는 종합반 기간동안 객관식세법을 법인세는 거의 6회독, 가장 마지막의 부가세 역시 3~4회독은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오래 걸리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외워져서 거의 기계적으로 풀게 됩니다. 저는 1차 객관식세법때 100점을 받았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열심히 누적 복습한 것이 제 세법 성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합반 시기에 상법을 가장 소홀히 했습니다. 그 때문에 심화 과정 때 상법때문에 1차 시험을 떨어질 것만 같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경영학과 경제학은 종합반 때 열심히 했다고는 생각하지만 심화종합반 하면서 거의 까먹었습니다. 경제학은 심화종합반 때 겨우 1번 다시 보는 것에 그쳤습니다. 결국 저는 경경상을 객관식 때 가서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객관식 종합반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관리는 김종길 선생님의 직관적인 설명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재무관리는 이해가 중요한 과목이므로 복습할 때 이해에 위주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붙잡고 있어봤자 이해를 못하거나 이상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체크해 두었다가 2회독 때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나, 2회독 때에도 모르겠는 경우 선생님께 질문했습니다. 물론 당일에도 핵심적인 부분이 혼자서 이해 가지 않는 경우에는 선생님, 또는 조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1. 심화종합반

저는 봄 기본 종합반이 끝남과 동시에 심화종합반을 수강했습니다. 심화종합반을 수강할 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저는 어차피 개념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때문에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 시간이 부족할 경우 재무회계(1차와 2차가 큰 차이가 없으므로 2차공부를 미리 한다고 해서 시간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함), 세무회계, 그리고 재무관리는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무관리를 추천 드리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김종길 선생님의 심화, 동차, 유예강의의 난이도 차이가 심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미리 듣는 경우 2차 공부할 때 심리적 편안함을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서와 난이도 차이가 커서 심화라는 이름에 가장 걸맞는 수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차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심화종합반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객관식 종합반

저는 심화종합반부터 인강으로 수강했고 객관식 종합반 역시 인강으로 수강했습니다. 인강으로 전환한 이유는 시간절약인데, 실강으로 8시간동안 6강을 듣는다면, 인강으로는 8시간동안 거의 7~8강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였습니다. 저는 원래 인강을 2강이상 못 들었지만, 종합반동안 억지로라도 앉아있는 버릇이 들어서 이 시기부터는 인강으로 전환했습니다.

제가 객관식을 들으면서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역별로 노트를 만든 것인데, 그 노트에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자꾸 실수하거나, 헷갈리거나, 정립되지 않았던 개념을 그 곳에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법노트라면 한 챕터당 한장으로 해서 장마다 챕터이름을 써놓고, 부가세 매입안분에서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부분을 발견하면 매입안분부분에 짧게 실수한 것이 무엇인지 적습니다. 이 노트 덕분에 시험 전에 빠르게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부분,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할 수 있어 실수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1. 재무회계

중급회계는 객관식 강의를 수강하면서 객관식 책의 회독을 늘리는데 주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챕터순서대로 회독을 늘려갔습니다. 그렇게 3회독을 하고 4회독부터는 각 챕터별로 1~2문제씩 뽑아 풀면서 하루 동안 전 범위를 조금씩이라도 보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리할 거리가 생기면 영역별 노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회계 역시 감이 중요한 과목이므로, 매일 매일 조금씩이라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식 책에 있는 모의고사를 주기를 정해놓고 보는 것도, 해이해지지 않게 해주는 효과와 더불어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정부회계는 김강호 강사님의 인강이 짧아서 12월에 2일간 수강했고 추가로 파이널 교재를 사서 주말마다 한번씩 전 범위 복습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원가회계는 김용남선생님의 객관식 책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끝에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원가가 관리파트보다 항상 나오는 파트가 많아서 우선 원가를 확실히 하고 관리 파트는 cvp, 단기 의사결정, 책임회계 정도만 확실히 하고 나머지는 개념만 알고 문제를 2회독 정도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1. 경영학, 경제학, 상법

상법은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과목이었습니다. 9월 말이 되도록 영업 양도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12월 초부터 김혁붕 선생님의 상법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1달간 수강했습니다. 상법서브노트를 샀는데, 사실 그 책 내용이 꽤 빈약합니다. 그래서 매 강의 수강 후 신강의 내용 중 핵심을 서브노트에 다 옮겨 쓰고 해당 부분의 문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제가 상법을 되게 빠른 기간에 잡은 편인데 인강을 들을 때 최대한 집중해서 들으면서 선생님이 외우라는 부분은 다 외우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단순무식하게 외우기 보다는 앞 글자를 따서 음을 붙이거나 말을 만드는 식으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정리된 서브노트로 회독을 늘렸습니다. 서브노트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므로 하루에 상법복습시간만 거의 3시간에서 3시간 반씩 썼습니다. 인강수강시간까지 합하면 매우 부담스러웠지만 처음에 확실하게 한 덕에 회독 속도도 빨라지고 오히려 1월 말 쯤에는 효자 과목이 되었습니다.

경제학은 다이어트 경제로 회독 수를 늘려갔습니다. 꼭 수강 전에 문제를 먼저 풀어본 후 강의를 들었고, 강의 수강 후 다시 그 문제들을 복습했습니다. 또한 무리해서라도 누적 복습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경제학은 계속 못 푸는 일부문제는 풀이 과정을 하나하나 써서 억지로라도 외웠습니다. (특이한 문제라면 그냥 넘겼고 전형적이지만 어려운 문제만 외웠습니다.) 다이어트 경제학에 나오는 문제를 짝수, 홀수로 나눠 빠르게 전 범위를 보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여기서 풀어본 문제만이라도 틀리지 말자는 마음으로 공부했습니다.

경영학은 가장 객관식의 도움을 많이 본 과목입니다. 또한 일일특강 경영학도 좋았습니다. 저는 경영학 기본서는 사실 거의 보지 않았고, 객관식 경영의 설명만 보다가 나중에는 일일특강에 나오는 설명만 봤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 한번씩 푼 후, 2회독부터는 파트당 무게를 다르게 둬서 빈출 파트의 문제는 많게는 2번 정도 더 보았고 나머지 파트는 핵심적이거나 체크해 둔 것만 보았습니다.

1. 재무관리

저는 객관식 재무관리를 풀면서 개념이 많은 부분 정리되었습니다. 객관식 재무관리를 여러 회독 풀면서 실수하거나, 헷갈리는 부분은 모두 노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또한 재무관리는 공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트에 주요 공식들은 다 써두고, 시험 직전까지 잊지 않도록 돌려봤습니다. 객관식 재무관리의 경우 끝에 시간이 없어서 기출 부분만 계속 돌려보고 실전은 주요 챕터의 경우에만 매번 다른 문제로 5문제 정도씩 돌려봤습니다.

1. 세법

세법은 제가 가장 공을 들인 과목입니다. 객관식 강의 수강 후 객관식세법에 안 나온 문제가 나오면 못 풀까 하는 걱정에 서브노트를 정말 꼼꼼히 봤습니다. 또한 객관식세법을 매일매일 풀었습니다. 오전을 거의 세법만으로 썼는데, 전 범위를 다 돌리기 위해서 1월, 2월간 매일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를 각각 2챕터, 2챕터, 1챕터씩 매일 풀었습니다. 상증세와 양도세도 애초부터 계속 챙겨갔는데 부가세가 끝나면 상증, 양도를 풀었습니다. 세법이 노트의 덕을 가장 많이 본 과목입니다. 세법은 사소한 실수만 있어도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 어이 없는 실수도 모두 노트에 썼습니다. 또한 말 문제 중에서 모르겠거나 헷갈리는 것들은 모두 형광펜을 칠해 놓고 맞다 아니다를 분별할 수 있도록 계속 봤습니다. 그 중 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노트에 옮겨 써놨습니다. 2회독 정도만 노트정리를 해도, 노트에 내가 항상 하는 실수가 거의 적혀 있기 때문에, 노트 정리 후 반복적인 실수를 하는 빈도가 급감했습니다. 개념정리가 아니라 실수한 것만 짧게 짧게 적으므로 시간 소요가 거의 없으니 실수가 잦으신 분들은 노트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헷갈리는 개념이 아닌 일반적인 개념정리를 노트에 하시면 팔도 아프고 시간이 매우 소요되니 개념은 서브노트에서 끝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2차공부

2차 때는 종합반을 수강하지 않고 개별인강으로 들었습니다. 재무회계의 경우 처음에는 진도에 맞춰 쭉 수강하면서 당일 복습과 함께 주말에 누적복습을 했습니다. 2차 유예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유예생용의 어려운 문제까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당일 복습, 2회독 정도까지는 하고 그 후에는 문제의 중요도에 따라 하지 않거나 계속 끌고 갔습니다. 문제의 중요도를 본인이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유형의 유예생용이면서, 이해가 가지않고 3회독까지도 답지를 계속 봐야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애초에 그냥 답지 만 보고 넘어가거나 끝에는 아예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무회계는 답이 맞아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평소에 공부할 때도 답이 맞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답이 안 맞을 때가 더 많았지만, 제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해야 긴장감있게 집중할 수 있어서 일부러라도 더 저를 채찍질 했습니다. 이런 마인드의 단점은 매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과 내가 몇 번째 이걸 보는데 계속 틀리지 하는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마음을 좀 더 여유 있게 가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면서도 건강한 마인드로 계속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원가회계의 경우 김용남 선생님의 동차반 강의를 인강으로 들었습니다. 원가는 한 번 풀 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 복습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는 원가의 경우는 답 맞추는데 주력을 두었고, 관리회계의 경우는 전형적인 경우에는 답을 맞추는 것에, 그렇지 않은 것은 아이디어를 배워가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워낙 동차 때 안 다루는 엄청난 문제들이 많아 가장 유예를 피하고 싶은 과목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2차원가시험에서 원가 문제를 확실히 맞추는 것이 합격에 중요하다고 하셔서 원가파트의 복습을 조금 더 주력했습니다. 답안지 작성은 모두 한글로 풀어 썼고, 완성품환산량이나 표를 그릴 때는 자를 대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깔끔하게 보이도록 노력했으며 식을 나름대로 꼼꼼히 쓰는 버릇을 들이려 노력했습니다. 원가가 답안 크기가 커서 연습 때 계속 대충대충 썼더니 모의고사 때 답안작성하기가 힘들어서 항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답안을 성의있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재무관리의 경우 김종길 선생님의 스튜디오 강의를 들었습니다. 스튜디오 강의는 판서 시간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50분 강의를 140강 정도를 찍으셨을 정도로 자세합니다. 재무관리는 인강을 들으면서 필기할 것은 필기해가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재무관리의 경우 이해가 가장 중요하므로 꼭 이해하고 넘어가거나 모르는 것은 체크한 후 2회독 때 다시 보거나, 주변에 물어봤습니다. 문제를 풀 때는 기출은 모두 풀고 실전의 경우 유예생용으로 뒤로 빠진 문제는 풀지 않았습니다. 양이 매우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출>실전식으로 한 챕터를 완벽하게 끝냈다면 나중에는 기출부터 쭉 빠르게 돌리고 그 다음엔 실전으로 돌리는 식으로 보았습니다. 기출>실전 2회독, 기출만 1회독, 실전만 1회독을 하니 시험치기 1주일 전이었습니다. (재무관리 복습이 약간 타 과목에 비해 밀려 있어서 시간을 크게 못 쏟았습니다. 저는 강의 듣기 전에 문제를 풀었고 듣고 나서는 어려워서 체크해 둔 문제만 다시 풀었습니다. 예습 시 1회독이 위의 2회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보면 풀이가 생각나서 사실 꽤 자신감있게 시험장에 들어갔지만 이번 재무관리 문제가 워낙 어려워서 1~3번을 그냥 넘어가며 시험 때 정말 당황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선가 떨어져도 50점 후반대로 떨어진다는 말을 들었고, 시험이 어려울수록 글자 하나하나가 점수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 말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며 최대한 쓸 수 있는 것은 모두 썼습니다. 아마 다음 시험이 또 어렵게 나오더라도 본인 뿐만이 아니라 다들 당황해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시험장에서 잘 모르겠어도 부서지는 마음을 꽉 잡고 문제를 백지로 남겨두지 말고 적어도 문제를 푼 흔적이라도 남겨두거나 공식이라도 써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세법의 경우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었지만 시험장에서 크게 당황한 과목입니다. 우선 서브노트를 중심으로 계속 개념을 잊지 않게 확인해주고 세무회계 때 다루는 심화된 개념들은 추가로 확실히 외우고 문제로 적용력을 길렀습니다. 또 문제를 풀 때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답안지를 깔끔하게 쓰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저는 이승철 선생님의 모든 와꾸를 따라갔기 때문에 와꾸가 명확한 파트의 경우에는 와꾸대로 답안을 작성했고, 그렇지 않은 것은 평소에 연습하면서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나에게 맞으면서 보기가 좋은지 고민했습니다. 시험 때 세무조정표를 그리라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평소에 세무조정표를 쓰는 버릇을 들이지 않아 표를 그리는 시간이나 작성에 있어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답안지를 많이 소요했습니다. 그러니 세무조정표를 그리라는 문제를 대비해서 어떻게 답안지를 효율적으로 쓸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단위의 경우 0을 여러 개 붙이면 좋으나 실제 시험에서 끝에 시간이 없어서 문제마다 (단위 : 백만원)을 쓰고 0 6개를 모두 뺐습니다. 제가 시험 때 당황한 이유는 두가지인데 첫번째는 긴장감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첫 2차시험의 첫 과목이다보니 저도 모르게 조금 긴장을 해서 평소에 고민도 하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헷갈리는 경우가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부적인 고민이 잘 안 되서 머리가 굳은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문제 겉면에 보이는 것만 보고 푼다고 생각하니 실수포인트에 다 걸렸을까봐 너무 걱정됐습니다. 두번째는 답안지 배분인데 앞에서 답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해서 결국 중간부터는 끝 문제를 답안지 끝장부터 쓰는 식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끝장이 아니라 맨 끝 앞장이어서 다 지우고 다시 작성하다보니 글자가 알아볼 수 있을지 고민될 정도로 날아가고 안 그래도 부족한 시간을 많이 뺏겨 2차 시험 중 가장 당황했습니다.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개념을 볼 때는 당연하다거나, 원래 알고 있던 것이라고 그냥 넘기지 말고, 시험 전에 한번만이라도 매우 집중해서 하나하나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모의고사 볼 때라도 답안지 배분에 신경 써서 풀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과목의 경우 2차 때 처음 본 과목이기 때문에 유예강의를 수강하면서 이해하면서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처음 들으면서 감사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권오상선생님께서 배경이나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해가 가는 것은 이해하고 모르겠는 부분은 그냥 외웠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느낌이라도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감사 GS강의를 등록할 정도로 열의를 보였지만 끝이 시간이 없어서 GS를 6회차부터는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스터디 가이드 문제까지 열심히 풀었지만 끝에는 목차만 계속 봤습니다. 사실 저는 감사가 가장 불안했고 투자도 적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감사 과목을 합격한 것은 그동안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느낌이 남아있었던 것과, 빈출되는 목차를 외운 것과, 운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과목을 치면서 뭐든지 쓰고 나오는 것에 의의를 두기로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라도 하려면 쓸 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빈출되는 파트의 목차는 암기하고, 좀 아무데나 갖다 붙이기 좋은 말(ex: 공시한다, 지배기구와 상의한다 등등)을 생각해 뒀습니다.

1. 생활패턴

저는 제가 수험생활을 짧게 끝낼 수 있었던 이유는 패턴화된 생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에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기계적으로 일어나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1월 봄종 때는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11시 까지 공부했지만 체력적인 문제로 약 7월쯤부터 아침 7시에 일어나 8시 반부터 저녁 11시 까지 공부했습니다. 2차 때는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7시 반까지도 잤습니다. 평일은 매일 이런 패턴으로 공부하고, 주말 토요일에는 7시~8시, 시험 직전에는 10시쯤 까지 공부하고 친구를 만나며 놀았습니다. 일요일에는 늦잠을 자고 점심을 먹고 학원에 와서 다시 저녁 11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주말에 이렇게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평일에는 친구를 절대 만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를 3개로 쪼개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밥 먹는 시간을 중심으로 아침, 점심, 저녁이었는데 무슨 과목을 공부할 때 점심 먹기 전까지 끝내야지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밥 먹는 시간이 항상 비슷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끝내려는 계획은 매우 동기부여가 되면서도, 실제로 끝냈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는 한 주동안 꼭 끝내야 할 공부를 그냥 나열한 후, 하루 단위별로 배분을 해 놓았습니다. 평일 아침에는 배분된 공부를 하루 동안에 어떻게 끝낼지 계획을 세우고 달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못다한 계획은 주말에 하거나 무리하게 짠 경우 그 다음주로 그냥 넘겼습니다.

복습은 당일 배운 것은 무조건 당일에 복습을 끝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강을 들을 때는 복습시간이 4시간 내외로 짧기 때문에 집중해서 빠르게 해야 해서 힘들 수 있지만, 복습이 밀린다면 종합반을 수강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강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당일 들은 분량은 모두 당일에 복습을 끝냈습니다. 2차공부때 인강을 오전에 감사 3개 듣고, 오후에 인강 내용이 끊기는 것이 싫어 세법을 6개 7개씩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감사 복습은 감사 인강 수강 후 했고, 세법은 그 다음날 복습했습니다. (그 다음날은 세법 복습 때문에 인강을 5개 정도만 수강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평균 7개정도씩 들은 것 같습니다. 매일 저렇게 들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최대한 복습을 꼬박꼬박 하면서 부득이하게 밀린다면 그 주 내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공부를 할 때 체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2차 때는 시험 1주 전에 감기가 걸려서 2일동안 링거를 맞으러 갈 정도로 상태도 안좋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낮잠도 자주 잤습니다. 원래는 하루에 한번 정도, 한번에 20분 가량을 잤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루 두번씩 잤다가 1차 치기 직전에는 하루 세 번씩 아침, 점심, 저녁 잤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굉장히 스트레스였습니다. 가끔 40분 50분씩 잠들면 거의 한시간이 날아가서 속상했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을 억지로 참으면 머리가 멈추면서 문제는 문제대로 안 풀리고 짜증만 엄청 났기 때문에 차라리 잠깐 자는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냥 낮잠을 잤습니다. 저처럼 체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홍삼이나 이런 건강식품들을 챙겨 드시고, 아무리 참아도 잠이 오거나 공부 효율이 떨어지신다면 10분 20분 정도 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난 1년 반은 제 인생에 매우 중요하고도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힘든 수험 공부에 이 공부를 오래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기왕 공부하기로 마음 먹은 것 빨리 하고 끝내자 라는 마음 가짐으로 공부했고, 해이해 질 때마다 지금 이순간 놀고 싶은 욕구에 져서 내년에 다시 공부하는 저를 생각하며 마음을 잡았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을 응원하며, 합격의 영광이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